

Online Series

2021. 06. 16. | CO 21-17

나, 우리, 너희의
대북인식

김 갑 식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박 주 화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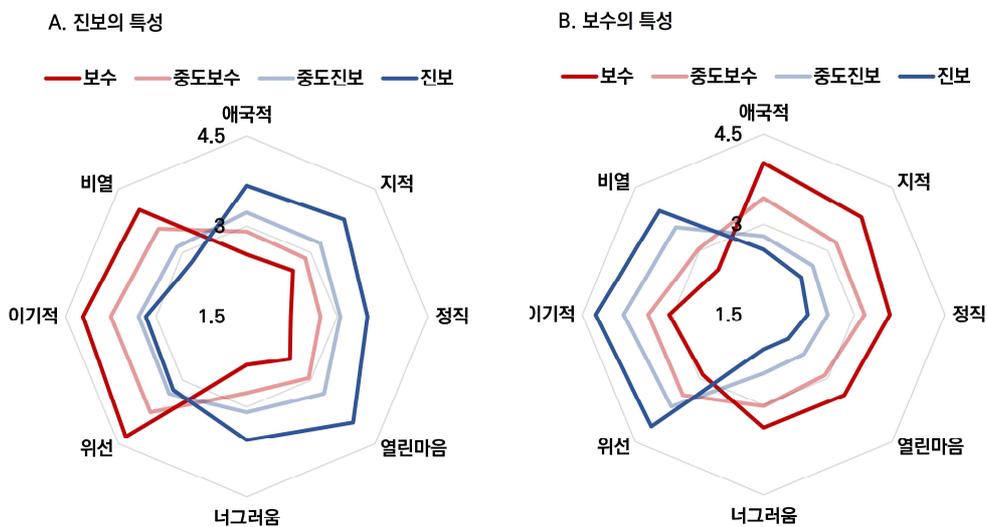
북한은 한국사회에서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핵심적인 키워드다.¹⁾ 남남갈등은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한 갈등이자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다. 하지만 남남갈등이 대북정책에 대한 갈등을 넘어서 한국사회의 지배적인 갈등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을 것이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 중인 상대집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 따라서 진보는 보수의 생각을, 보수는 진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남남갈등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과 연구는 각 이념집단이 북한과 대북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보수와 진보가 상대에 대해, 그리고 상대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아마 여론조사 또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보수의 생각을 진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보수 역시 진보의 인식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해 여론조사, 선행연구의 결과가 곧 진보와 보수의 상대에 대한 인식이라고 가정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전술한 가정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보수와 진보에 대한 고정관념, 진보와 보수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태도, 그리고 보수와 진보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지에 대한 예상을 경험적으로 조사한 결과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²⁾

- 1) 김갑식, “한국사회 남남갈등: 기원, 전개과정 그리고 특성,” 『한국과 국제정치』, 제23권 2호 (2007) 참조.
- 2) 연구를 위한 조사는 통일연구원의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 종합연구 사업- 평화공감대 확산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과제의 일부로 실시되었다. 조사는 2021년 5월 온라인조사 방식으로 진행

상대에 대한 태도

먼저 보수층과 진보층이 어떤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참여자는 각 이념층이 ‘애국적’, ‘지적’, ‘정직’, ‘열린 마음’, ‘너그러움’, ‘위선’, ‘이기적’, 그리고 ‘비열’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6점 척도(1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6점: 매우 동의한다)상에서 응답하였으며³⁾ 그 결과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 보수와 진보의 특성⁴⁾



<그림 1>이 보여주는 결과는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명확하다. 보수층과 진보층 모두 상대 이념집단에 대한 적대감이 매우 강했다. 보수층은 자신이 포함된 보수층이 애국적, 지적 등의 긍정적 특성의 수준이 높은 반면 비열, 이기적 등 부정적 특성의 수준이 낮다고 응답하였다(<그림 1> B의 붉은색). 하지만 보수층은 진보층에 대해 부정적 특성의 수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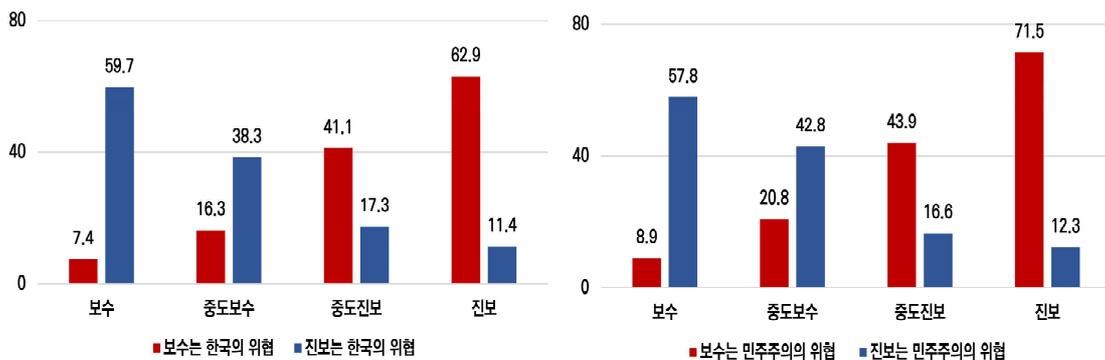
되었으며 모집단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이다. 표본의 수는 1,600명이며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할당표집 방법을 이용하여 추출되었다. 신뢰수준은 95%±1.12%P이다.

- 9개 특성은 정서적 양극화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특질이다. James N. Druckman and Matthew S. Levendusky, "What Do We Measure When We Measure Affective Polariza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83, no. 1 (2019), p. 115.
- 이념은 7점 척도(1점: 매우보수, 4점: 중도, 7점: 매우진보)로 측정하였다. 보수는 1점부터 3점까지의 응답자, 진보는 5점에서 7점까지의 응답자이다. 자신을 중도(4점)라고 밝힌 응답자에 대해 보수와 진보 중 자신의 이념과 비슷한 집단이 무엇인지 물어본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도보수와 중도진보를 구분하였다.

높으며 긍정적 특성의 수준은 낮다고 판단하였다(<그림 1> A의 붉은색). 진보층도 자신이 포함된 진보층은 높은 수준의 긍정적 특성과 낮은 수준의 부정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그림 1> A의 푸른색) 보수층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의 긍정적 특성과 높은 수준의 부정적 특성을 가졌다고 응답하였다(<그림 1> B의 푸른색). 자신이 포함된 집단에 긍정적인 특성을 투사하는 내집단 편향, 자신이 포함되지 않는 집단에 부정적 특성을 투사하는 외집단 혐오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문제는 두 이념층 모두 내집단에는 긍정적인 특성“만”을, 외집단에게는 부정적인 특성“만”을 강하게 투사한다는 점이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북한에 대한 인식의 차이, 그리고 정책방향에 대한 차이를 넘어 집단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보다 심각한 점은 진보와 보수 모두 상대를 한국사회와 민주주의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2>는 ‘보수와 진보가 한국사회와 민주주의의 위협이다’라는 각각의 진술에 동의한 비율을 제시하였다.⁵⁾

<그림 2> 이념집단별 진보와 보수에 대한 위협인식



진보층의 62.9%가 보수는 한국의 위협, 71.5%는 민주주의의 위협이라고 응답하였다. 보수층의 59.7%가 진보는 한국의 위협, 57.8%는 민주주의의 위협이라고 응답하였다. 자신의 이념집단이 한국과 한국 민주주의의 위협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을 양 이념집단 모두 10% 내외였다.

<그림1>과 <그림 2>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또 다른 공통점은 이념이 극단적일수록 내집

5) 측정은 6점 척도(1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6점: 매우 동의한다)상에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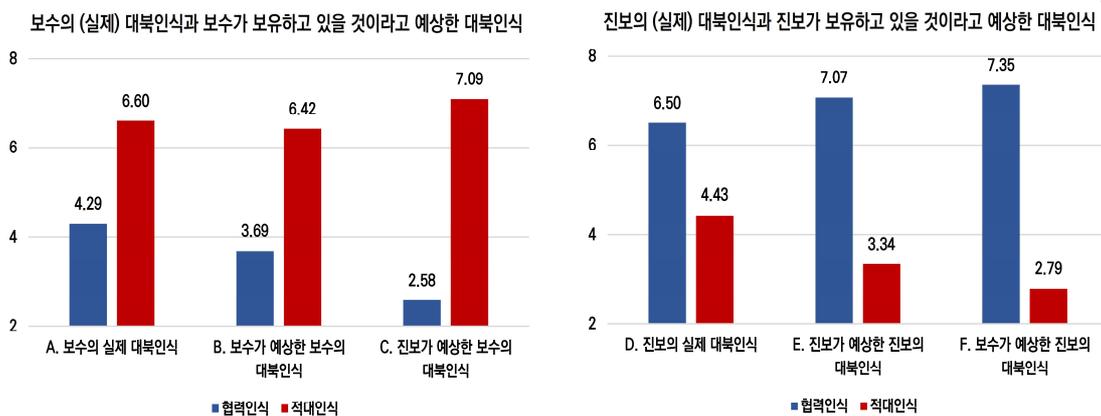
단 편향과 외집단 혐오가 강해진다는 점이다. 중도보수와 중도진보는 각각 보수와 진보에 비해 상대 이념집단에 대한 위협인식, 내집단 편향 그리고 외집단 혐오 수준이 낮은 반면 자기진영에 대한 위협인식은 높았다.

이상의 결과는 진보와 보수의 상호인식이 상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심각한 수준이며, 그 수준은 혐오를 넘어 상대를 국가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음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향성은 이념이 극단적일수록 더 강했다. 다시 말하면 보수와 진보는 상대를 토론과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굴복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상대 생각에 대한 생각

통일국민협약과 같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의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차이, 즉 토론과 협의를 통해 좁혀야 할 차이와 직결된다. <그림 3>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그림 3> 이념집단별 대북인식과 예상한 대북인식



<그림 3>에 북한이 협력의 대상 그리고 적대의 대상인지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생각, 그리고 보수와 진보가 북한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우리사회의 예상을 제시하였다.⁶⁾

6) 측정은 11점 척도(0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0점: 매우 동의한다)상에서 이루어졌다. 보수층과 진보

먼저 보수와 진보의 실제 인식을 살펴보면 보수는 북한을 적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정도(6.60)가 협력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정도(4.29)보다 강했다(차이값: 2.31). 진보는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정도(6.50)가 적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정도(4.43)보다 강했다(차이값: 2.07).

진보는 보수가, 보수는 진보가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까? 진보는 보수가 북한을 적대의 대상으로만 볼 것으로(협력대상: 2.58, 적대대상: 7.09, 차이값: 4.51) 예상했으며 보수는 진보가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만 볼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협력대상: 7.35, 적대대상: 2.79, 차이값: 4.56). 실제 보수와 진보의 대북인식과는 큰 괴리가 있었다. 이러한 괴리는 자신이 포함된 이념집단에 대한 생각에서도 관찰되었다. 보수층은 보수층이 북한에 대해 적대인식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진보층은 진보층이 북한에 대해 협력인식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내집단에 대한 오해는 진보층이 더 강했다.

본 조사는 우리사회가 진보와 보수의 대북관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진보층은 우리 생각만큼 북한에 대해 협력적이지 않으며 우리 생각보다 더 북한을 위협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보수층은 우리 생각만큼 북한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으며 우리 생각보다 더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오해의 파괴적 효과

이러한 오해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진보와 보수의 대화의 과정을 방해한다. 먼저 실제로 집단 간 차이를 확대 해석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상대가 나의 생각을 오해하고 있다는 점을 불필요하게 설명해야 함은 물론 소위 내 편에게조차 나의 생각을 오해하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진보가 생각보다 안보이슈에 긍정적이다’라는 인식을 가진 보수층과 ‘보수가 생각보다 북한에 협력적이다’라는 인식을 가진 진보층의 사회적 대화와 ‘진보는 북한을 협력적으로만 볼 것’이라는 보수층과 ‘보수는 북한을 적대적으로만 볼 것’이라는 진보층의 사회적 대화의 과정과 결과, 사회적 비용의 차이는 명약관화하다.

둘째 이러한 오해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대화는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소위 집단극화가 발생하는 조건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집단의 규범이 개인의 생각과

층의 대북인식 예상의 경우 ‘0점: 보수/진보는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10점: 진보/보수는 매우 동의할 것이다’의 지시문이 사용되었다.

규범보다 더 극단적인 경우 개인은 집단의 규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게 된다. 특히 보수와 진보의 대북관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토론과 대화, 특히 공개된 토론과 대화 속에서는 자신의 생각보다 자신이 포함된 내집단의 규범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대화와 토론이 역설적으로 갈등을 악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대진영, 나의 진영에 대한 오해는 상대진영에 대한 편견과 위협인식의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실제로 본 조사에서 상대진영에 대한 오해(기대된 대북인식 - 실제 대북인식)가 클수록 상대진영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위협인식이 높았다. 예를 들어 보수층의 경우 진보층이 북한에 대해 협력적 인식만을 가졌다고 생각할수록 진보층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으며 진보층을 우리사회의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진보층 역시 보수층이 적대인식만을 가졌다고 생각할수록 보수층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위협인식이 강했다. 정치적 양극화, 정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시작해야 할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결과이다.

정책적 함의

가장 시급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를 오해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보수와 진보 간 사회적 대화의 목적 그 자체를 상호이해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 대북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 과정 중 상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서로의 이해를 높이는 절차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반문이 가능하다. 하지만 상대에 대한 오해가 큰 상황에서는 각자의 입장을 제시하는 과정은 득보다는 실이 클 가능성이 있다. 합의라는 강요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상호이해와 상호이해 그 자체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차이는 자명하다. 설사 합의가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상대에 대한 깊은 불신과 오해를 지니고 있다면 합의의 지속성도 담보할 수 없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념 진영 내 토론도 필요하다. 본 조사에서 확인된 우리 집단의 상대집단에 대한 우월의식이 강함을 인정하고 수정이 필요하다. 상대에 대한 오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오해도 해결해야 한다. 보수조차 보수를, 진보조차 진보를 극단적인 대북인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는 상황에서 합의의 영역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와 다르다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집단 내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진보 내에서 북한의 위협 대처를

강조하는 목소리를 존중하고 협력 중심적 사고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수용해야 한다. 보수 역시 진영 내 북한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목소리와 안보주의를 경계하는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정치공학적 접근이 아니라 <그림 3>에 제시되었듯이 진보의 대북인식, 보수의 대북인식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면의 제약으로 소개하지 못했지만 본 조사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북한에 대한 인식 및 대북정책과 더불어 경제, 복지, 교육 정책에 대한 선호도 조사하였다.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보수와 진보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서로를 오해하고 있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나, 우리, 그리고 상대의 생각을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KINU 2021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